

## 肉鷄 統合體系(系列化) 展開 過程上의 似而非 系列主體 問題

金貞注 · 朴永寅\*

건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993. 4. 15. 접수)

## Pseudo-Integrators in the Evolution of Korea's Broiler Integration

Jung J. Kim and Young I. Park\*

Konkuk University

(Received April 15, 1993)

### SUMMARY

The structure change in the broiler industry of Korea has been taking place very rapidly toward the direction of integrated production and marketing system. During the course of the evolution into the integrated structure, however, a number of small business entities, uncountable nationally but a minimum of a dozen, that previously engaged in the supply of production factors or live bird transaction also tended to get involved in the new system as a disguised or pseudo-integrator, having brought a lot of problems not only to the farmers but also to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structure.

The pseudo-integrator is generally characterized by limited functions in such a way of supplying chicks and feeds to and collecting grown birds from farmers under the contract at a fixed farmer's payment in practically the same pattern as a partial or quasi-integration, which intends to act as if an integrator in a stratagem to simply enjoy a margin simply from selling supplies and buying produc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grower making a contract with appears to be a farmer who used to be an independent and speculating but not able to join in the normal system of evolving integration.

The problems of a pseudo-integrator center on the financial loss to a contract farmer, because the falsified integrator has to become easily bankrupt and run away when the price of live broiler continually stays below the cost of production, even though he is able to make a tremendous profit otherwise which is the real purpose of the operation for. It is true that the volatile market, fluctuating the price up more than doubled in a month and down to a half in a few weeks, makes the pseudo-integrator find the room for such a fraudulence. In addition, its activity also adversely affect the evolution of the integration due to rather negative image on structure change in general.

It is recommended that the farmers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 real picture of the integrated system so as not to be swindled by a disguised, small scale agribusiness agent. By the same token, it is also equally required to have the whole industry integrated completely as early as possible. The joint effort to get rid of pseudo-integrators' problems shall be put for the industry develop-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

ment moving toward the integration. No doubt a pseudo-integrator must be a temporary player for chance emerging during the course of structure change into the integrated, though.

## I. 머리말

우리나라는 1989년에 GATT의 BOP조항을 졸업하면서 1997년까지 단계적으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계획을 예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93년에 미절단 신선 냉장 닭고기를, 1994년 까지는 절단 신선 냉장 닭고기를 수입 자유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육계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물론 냉장 닭고기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中國, 日本 등이고, 그들이 아직 수출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을지 모르나 냉장 닭고기의 수입 자유화가 바로 냉동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전초전으로 본다면 이것은 커다란 憂慮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초생추의 輸入에서부터 種卵의 생산과 부화, 飼料 및 藥品의 공급, 生鷄 飼育과 屠鷄, 鷄肉의 가공, 판매, 외식 등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가 독자적 個別經營體에 의하여 수행되는 전형적인 非統合(non-integration)이 지배적이다가, 근래에 몇 개의 육계관련 회사 및 사육자가 주축이 되어 육계의 生産 및 流通統合體系(integrated production and marketing system)를 도입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趨勢가 지속된다면 肉鷄産業이 계열체제로 정착되어 國際競爭力을 갖는 등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系列化 展開과정에 있어 요즈음(1992년 중반) 系列主體의 기능을 僞裝한 일부 육계관련업체가 여기저기서 등장하여 系列體系의 정착을 크게 阻害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당장 契約農家에게 피해를 주어 육계 산업의 문제점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그래서 본고는 우리나라 肉鷄系列化의 展開實相을 살펴보고, 현재 문제서 되고 있는 似而非 系列主體의 정체를 把握하여, 금후의 代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II. 육계 계열화 展開狀況

우리나라의 육계산업 계열화는 자본 조달과 경영능력은 있으면서 사육을 담당해 줄 노동력이 없는 企業과, 사육시설과 기술 및 노동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없는 飼育農家가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을 통합경영하는 형태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이와 같은 계열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벌이고 있다. 1992년만 해도 육계 계열화 사업을 위하여 계열 주체당 35억원을 연리 8%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의 지원을 하고 있다.

### 1. 계열화 사업의 實相

우리나라의 肉鷄産業 계열화는 도계장이나 부화장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1992년 현재 주식회사 천호 등 16개의 육계 계열 주체가 있으나 그중 3~4개 주체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계열화사업의 초기단계인 部分系列化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전체경영을 담당하는 계열 주체(기업, 협동조합, 생산자 집단)와 육계 사육을 담당하는 생산 주체(사육농가)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열 주체는 병아리, 사료, 약품, 난방연료 등 생산자재를 사전에 약정된 기준에 의거 생산주체에 공급한다.

2) 사육 주체는 자신이 소유한 사육시설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계열주체가 요구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사육출하하고 사전에 약정한 飼育報酬를 받는다.

3) 계열 주체는 生産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순회 사양기술과 經營指導를 실시한다.

4) 사육 주체는 사육현황을 수시로 계열 주체에게 通報할 의무를 가진다. 사육농가에 공급된 生産資材는 그 소유권이 계열 주체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5) 飼料要求率은 肉鷄의 체중별, 계절별로 다소의 差等を 두어 사전에 정하고 飼料要求率이 합의된 기준율보다 낮을 때 절약된 사료해당액을 사육농가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는 사육농가가 받아야 할 사육보수에서 基準 飼料要求率보다 과다하게 소비한 사료 해당액을 「페널티」 형식으로 공제한다.

다.

6) 폐사율은 사전에 약정하되 덤을 제외하고 보통 3%까지 인정하며 3%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마리수를 초생추 가격으로 환산하여 사육농가가 변상하고 3% 이내일 경우는 飼育 報酬를 병아리 입추수에 의하여 계산해 준다. 그러나 법정 전염병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병아리의 대량 폐사의 경우 대개 손실액의 절반을 계열 주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많다.

7) 연간 입추回數는 계사의 청소 및 소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방역상 반드시 필요한 休止期間을 지켜야 하므로 보통 연 4~5회가 일반적이며, 사육농가가 매 回次마다 입식한 병아리수수는 보통 2만 수 정도이다.

8) 계약된 육계 出荷體重은 1.5~2.2kg 범위로 다양하다. 목표 체중에 도달하여 생닭을 출하할 경우 생닭의 上車까지 생산 주체 책임이다.

9) 출하시 計斤은 계열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 계근장치를 이용하거나 인근 공인계량소의 계근 결과에 의하고 출하首數의 확인은 도계장의 계수기에 의하되 편차가 심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한다.

10) 사육보수는 1.5kg 기준 수당 200원 수준으로 연간 4회 입식할 경우 약 1,600만원(4회×20,000수×200원)의 사육보수가 되며 이는 비용을 공제한 소득개념이므로 연간平均農家所得을 고려할 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 2. 계열화 체계의 利點

계열화 체계에서는 경영 전체를 하나의 經營主體가 統合하여 주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잇점이 있게 된다.

1) 경영규모를 확대함으로써 規模의 經濟를 실현할 수 있고 특히 중간재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감면해준다면 節稅가 가능하여 단독 경영체계에 비하여 生産費를 節減할 수 있다.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산비를 기준으로 生鷄 단계에서 17.8%, 도계육 단계에서 24.5%, 닭고기 요리단계에서 32%를 절감할 수 있고 販賣價格을 기준할 경우 도계육 도매단계에서 31.8%, 닭고기 요리단계에서 41.5%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계산 결과는 계산방법, 자료의 적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

나 20~30%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Table 1. 系列化 體系에 의한 肉鷄 生産費 절감

구 분	계열화 (원)	개별경영 (원)	절감 (%)
생닭 생산비 /kg	1,211.3	1,474.2	17.8
생닭 산지가격 /kg	-	1,664.1	-
도계육 생산비 /kg	1,451.9	1,924.0	24.5
도계육 도매가 /kg	1,597.1	2,447.0	31.8
도계육 소매가 /kg	-	2,447.0	-
닭요리 생산비 /kg	2,220.1	3,257.0	32.0
닭요리 판매가 /kg	2,664.1	4,551.3	41.5

자료 : 김정주, 한국육계산업의 계열화 체계와 그 효과, 한국육계산업 발전협의회, 1990. P. 75

2) 자재의 조달, 사육관리, 가공처리 등의 상품화 과정이 하나의 경영체에 의하여 주도됨으로서 製品의 規格化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제품의 質을 높일 수 있고 질병관리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으며 제품의 衛生的 처리수준을 제고할 수 있어 소비촉진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각종 농축산물의 安全性 문제가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비경제적 효과의 중요성은 점차 높여 평가될 것이다.

3) 계열 주체는 자기 商標에 대한 廣告, 宣傳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계열 주체와 水平的으로 統合할 경우 공동 광고활동이 가능하여 제품의 소비 促進에 기여할 수 있다.

4) 육계와 같이 자본의 회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품목은 생산의 進入, 退出이 용이하여 결국 과잉 및 과소생산이 반복될 뿐 아니라 생산자의 수가 무수히 많아 의사결정이 어려워 사실상 생산의 조절이 불가능한데, 계열화 체계에서는 전체의 생산을 소수의 경영체가 관장할 수 있고 생산조절을 위한 意思決定이 쉽게 이루어져 수급조절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품의 輸出入에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과잉 또는 과소 생산의 진폭을 완화시킬 수 있다.

5) 자재의 공급업체와 같은 聯關產業과의 산업간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산업간 均衡된 발전에 기여하여 결국 全體產業發展에 기여할 수 있다.

## 2. 생산농민 位相 問題

우리나라의 육계 계열화는 대부분 기업에 주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주도 系列化 사업의 初期에는 生産을 담당하는 농가가 系列主體에 예측되는 것처럼 되어 마치 봉건시대의 소작제도가 부활된 것같이 느껴지는 생산농민의 位相問題가 심각히 대두된다. 契約農家の 계열화에 대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1.7%가 系列主體와의 관계에 대해 “완전히 예측되거나 위촉된 감이 있다”고 응답한 사실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나 농업관련기관 및 농민단체가 系列化 사업의 계약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표준계약서 작성, 系列主體에 대한 자금지원, 稅制개선, 사육농가에 대한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등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일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만일 系列主體와 사육농가 사이에 契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사육농가는 系列化 사업으로부터 즉시 탈퇴하여 독자적인 경영體制로 전환할 수 있는 次善의 방법이 있다. 이는 신분적인 예측이 아니므로 再契約에 응하지 않음으로서 쉽게 離脫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代案으로 제시되는 것이 사육자가 직접 系列主體 역할을 담당하는 계열화 사업의 구상이다. 사육자가 主導한 계열화 사업이란 생산자 단체인 협동조합이나 自生的으로 생겨난 농민들의 조직 모두를 포함한다.

만일 協同組合이나 농민 단체가 系列化 사업을 주도한다면 앞서 말한 생산농민의 위상문제가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協同組合이나 농민의 자생적 단체가 과연 企業主體와 경쟁할 수 있는 經營能力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철저한 책임 경영체제와 전문 경영체제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농민의 자생적 단체는 구성원간의 결속은 강하고 市場變化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기 쉽다는 불안감을 씻을 수 없다. 그렇다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늘릴 경우 협동조합이 갖는 약점이 되풀이 되어 악순환이 계속된다. 따라서 처음부

터 所有形態의 계열화 체계로 출발하기 보다는 농민 본래의 영역인 사육부문을 중심으로 前後方의 관련산업을 계약형태의 계열화부터 시작하여 자금능력에 따라 점차 소유형태의 계열화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육계생산자들의 자생적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協同+企業형태의 系列主體는 大慶, 釜慶, 서울인티 등이 있다.

## Ⅲ. 似而非 계열 주제

### 1. 投機場이 된 육계 산업

투기란 상품의 가격이 變動할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미리 그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함으로써 그 매매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 경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證券市場, 先物市場 모두가 이러한 인간의 投機心理를 바탕으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의 와중에서 예기치 않게도 땅값이 급등할 것을 사전에 알게된 소수의 사람들이 땅 투기를 함으로써 天文學的인 숫자의 차액을 챙기는 사례가 非-非再하게 일어나 대다수 국민들을 좌절과 불안에 빠지게 함으로써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投機行爲가 육계부문에 심심치 않게 만연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예만 보아도 1992년 9월 이후 육계값이 계속 下落勢를 보이더니 10월 중순에 이르러서는 생체 kg당 400원으로 바닥을 헤매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1,000원 이상, 그러다가는 또 내려가는 등 심한 변동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 (그림 1 참조)

그렇다면 육계값이 왜 이처럼 변동이 심할까? 그것은 육계는 부화후 몇 週, 길어야 40일이면 상품화 될 수 있어서 농업이라기 보다는 工業生産에 비유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지도 모를 만큼 供給의 彈性性이 큰 상품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모든 식품이 그러하듯이 그 需要는 그다지 振幅이 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급변동에 따라 가격진폭이 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공급측면을 보면, 그동안 육계부분이 好況을 누릴 때 새로운 사육자가 늘어났을 것이며 설상가상으로 육계 계열화 업체가 늘어나면서 농가와의 契約飼育이 많아져, 결국 공급측면의 증가요인을 제공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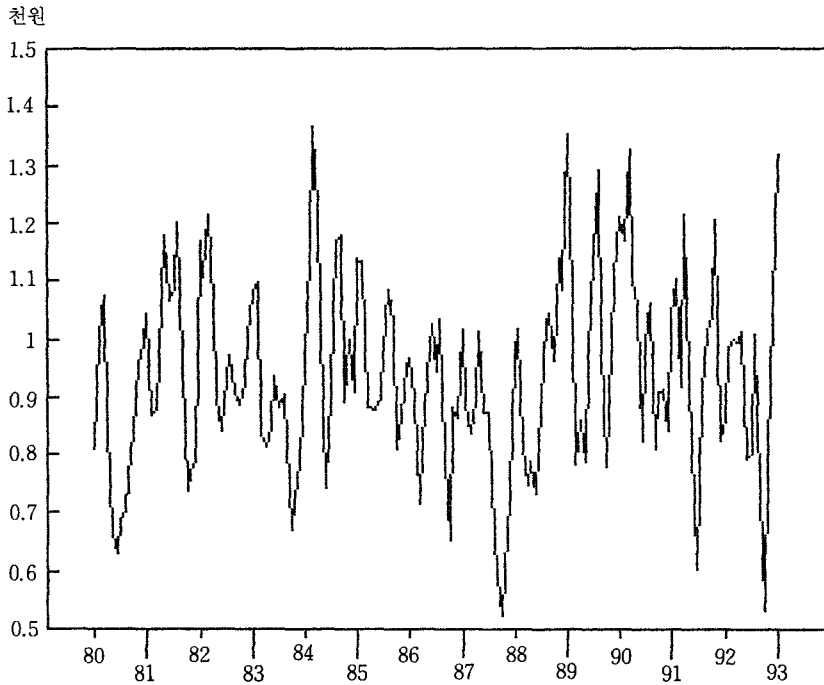


그림 1. 년도별 닭고기 가격 변동

을 것이다. 특히 계열 주체들이 기존의 사육농가보다 新規參與者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경우 결국 供給增加要因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生鷄가 流通되는 市場體系이어서 需給調整을 위한 備蓄方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하루 빨리 可食性的 鷄肉을 유통하는 市場體系로 전환되어 공급조정이 가능하고 消費促進활동에 의한 수요확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요측면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기가 沈滯局面에 접어든 탓으로 닭고기를 포함한 비교적 소득 탄력성이 큰 상품의 수요가 감소했을 것이다. 또 輸入牛肉의 低價大量 放出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수입쇠고기로 닭고기를 代替했을 것이기 때문에 닭고기 수요는 감소 내지는 정체되었을 것이다. 결국 공급은 늘고 수요는 감소 내지는 정체되면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닭고기 가격변동이 심하면 심할수록 시세의 변동을 악용한 사이비 系列主體들이 발 붙일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커진다.

## 2. 사이비 계열주체의 正體

사이비 주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似而非”라는 말의 정의부터 생각해 보자. 사전적 표현을 빌리면 사이비란 “겉으로는 제법 비슷하나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 또는 진짜처럼 보이나 실은 가짜(being apparently rather than actually as stated)”로 표기되어 있다. 육계 계열화 사업의 似而非 계열 주체도 겉으로는 契約飼育의 체제를 갖추는 등 肉鷄 系列主體처럼 보이나 사실은 계열화 要素中的 극히 일부만을 관여하거나 심지어는 사무실 정도의 시설만 가지고 육계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이 나면 적극 介入하고 손해를 보면 潛跡해 버리는 屬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들은 대규모 육계 사육농가에게 販路를 확보해주는 仲介役割을 하거나 사료회사나 대규모 부화장의 판촉을 위한 에이전트(agent)로 활동하면서 生鷄의 물량 흐름과 가격변동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요소의 外上調達은 물론 생산물의 판매처를 알고 있거나 일부 확보하고 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 이 사회에서 이들의 활동을 일일이 규제할 수는 없으나 이들이 육계산업을 송두리채 攪亂시키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최근의 육계가

격 하락에는 이러한 사이비 계열 주체의 활동이 크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즉, 이들 사이비 계열 주체들이 병아리 사육을 장려하였으나 生産價格이 폭락하자 결국 倒産하고 잠적해 버린 사례가 속출, 유계의 投資行爲는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닭 값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변동이 심한 육계가격 周期를 이용하여 上昇期에 利益을 취하고 下落期에는 고의로 不渡를 내고 잠적함으로써 사육농가는 물론 사료회사나 도계장에게도 被害를 주어 육계 계열화사업 體系 發展에 큰 손상을 주고 있다. 이들은 주로 양계업의 속사정을 잘 아는 中小 製造人 또는 商人으로 최근에 正規 계열체가 漸増하여 그들의 市場이 잠식 당하자 더욱 似而非方式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현재 전국에 10~15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이를 類型別로 나누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은, 종계장이나 부화장을 소유하고 있어 自體 병아리 공급이 가능하고 사료회사와의 안면을 이용, 담보를 제공하고 사료를 外上購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계열화사업에 不滿을 품고 있는 농가들에게 보다 좋은 飼育報酬를 제시하는 類型이 있다. 이렇게 하여 병아리, 사료, 사육농가 확보가 가능하게 되면 쉽게 계열화 사업을 흥내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생산된 닭은 生鷄狀態로 또는 위탁도계후 屠鷄品 狀態로 外食業體나 流通機關에 판매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계열업체와 다를 바가 없으나 生鷄價格이 떨어져 손해를 보게 되면 飼育報酬와 飼料 外上代金支給을 계속 연기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불한 후 적당한 기회에 고의적으로 不渡處理하고 잠적해 버린다. 이때 사료 외상거래에 農家가 連帶保證人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채무자를 놓친 사료회사는 사육농가에게 사료비를 청구하기도 하여 사육농가의 입장을 二重三重으로 難處하게 만든다. 이들 사이비 계열 주체는 그 計劃이 어렵게 되면 사육보수나 사료대전의 지급을 유예시킴으로써 빚을 받기 위하여 다시 빚을 주는 惡循環이 반복하여 그 규모는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사료회사의 입장에서야 담보를 확보해 놓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사육농가의 입장에서는 束手無策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유형은, 병아리나 飼料代理店을 운영하는 사람이 앞의 수법으로 계열화 사업을 시작했다가 도산후 잠적하는 사례이다.

셋째 유형은, 系列體系에 경험이 있는 계열 주체의 前任職員이 계열사업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일부 不滿이 있는 飼料農家를 별도로 설득, 앞의 방법으로 계열화 사업을 하다가 資金調達이 여의치 않으면 잠적해 버리는 사례이다.

네째 유형은, 事務室 정도의 시설만 가지고 양계관련 福德房역할을 하던 生鷄商 등의 소개꾼들이 부화장, 사료회사에서 외상으로 조달한 병아리와 사료를 가지고 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 다행히 生鷄價格이 높게 유지되면 많은 差額을 남길 수 있으나 가격이 하락하면 不渡내어야 하는 경우이다.

### 3. 사이비 주체가 제기하는 큰 問題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農家에 대한 피해에 못지 않게 이러한 사이비 계열 주체의 활동에 대한 視覺이 육계발전을 阻害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 도입된 육계 계열화 사업이 단기간내에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여 “農業의 神話”를 이룬다고까지 극찬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비 계열 주체가 속출하자 전말의 내용을 완전히 把握치 못하거나 평소 육계 계열화 사업에 다소 抵抗感을 가진 일부 既得權(vested interests) 그룹은 마치 계열화 사업이 價格暴落과 사이비 계열 주체의 활동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產業構造改善 次元의 육계 계열화 體系를 송두리채 否定하려 들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새로운 制度를 막론하고 그것이 定着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系列化 展開 過程上의 一時的 問題에 불과할 似而非現象을 놓고 전체로 飛火시키는 愚를 범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 IV. 사이비 계열 주체의 被害 防止

### 1. 完全統合體系의 早期定着

이처럼 사이비 계열 주체가 발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生鷄 流通이 盛行함에 따라 가격변동이 지나치게 심하여 氣流만 잘 타면 一攫千金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몇 차례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한 차례 큰차액을 내면 된다고 믿을 수 있는 興件인 것이다. 이를 是正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육계가격의 安定이 이룩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현재 급속히 推進되고 있는 肉鷄統合體系의 전개, 즉 非統合 → 部分統合 → 完全統合으로의 移行이 조속히 달성되어 生鷄流通이 鷄肉流通으로 바뀌고 나아가 需給과 價格安定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 2. 계열 주체와 사육 주체간의 共存意識 고취

産業 全體가 계열화 체계로 안정되기 전까지는 사육농가의 새로운 經營方式에 대한 不滿이 있게 마련인바 이것이 適時에 合理的으로 풀리지 않고 다른 조건이 조금만 有利해도 쉽게 동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열 주체가 생산 주체와 수시로 모임을 갖고 상호 어려움을 듣고 들려줌으로써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구체적으로 定期的인 懇談會를 개최하여 필요한 기술교육도 시키고 계열 주체의 운영에 관한 내용도 알려주며 생산 주체의 문제점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계열 주체의 주식을 생산 주체로 하여금 매입케 하는 '우리 사주'와 비슷한 체계를 이룩하여 系列主體와 飼育農家間的 共存意識함양을 통한 協力體系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3. 飼育者主導 계열 체계의 적극적인 育成

아무리 사이비 계열 주체가 기승을 부려도 사육농가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앞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飼育農家は 企業主導 계열체계의 對應方案으로 여러 형태의 사육자 주도 完全系列體系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協同組合이 肉鷄專門으로 경영개편하여 계열체계화 하던가, 협동조합의 經營特性에 문제가 있다면 組織은 協同組合을 바탕으로 하되 經營은 企業方式으로 하는 協同組合 + 企業의 절충형식을 취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模型이 이미 試圖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政府도 계열 체계의 效率的인 定着을 위해 사육자 주도형을 적극 勸獎한다면 似而非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 4. 개별, 통합 및 산업을 하나로 보는 認識의 提高

사이비 계열 주체가 발호하면서 육계산업에 惡影響을 끼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過渡期的인 현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육계산업을 보는 장기적이고도 올바른 비전을 가지는 일이 필요하다. 나무가 여럿 모여 숲을 이루듯이 個別經營이 모여 統合經營을 이루고 이는 다시 産業을 형성하는 것이다. 3I(세가지 아이)개념, 즉 개별경영(Individual), 계열화(Integration) 및 산업(Industry)의 관계를 하나로 보는 認識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별경영(첫째 I)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계열화(둘째 I)나 산업(셋째 I)에 대해서는 等閑視하는 경향이였다. 앞으로 3I개념을 熟知하여 실현한다면 似而非 主體의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 V. 맺는말

우리나라의 육계 계열화 체계는 오래전부터 試圖되었으나 근래에 와서야 可視的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아직은 대부분이 部分系列의 수준이나 일부 體系는 完全系列에 접근해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世界的인 市場開放 추세에 따라 生産性과 國際競爭力을 높여 生存하기 위해서는 肉鷄系列化는 필요 불가결의 수단이라는 인식과 共感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轉換期的인 육계산업 構造改編과정에서 그 過渡期的인 不安에 편승하여 系列主體인양 似而非 방식으로 사육자에게 損害를 주고 관련기업, 나아가 肉鷄産業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部類가 있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似而非 系列主體는 대부분 육계 관련부분 從事者들로 현재의 生鷄流通과 價格의 극심한 不安定상태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計策을 갖고 운영한다. 그러므로 생계가격이 下落하여 飼育報酬까지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계약 不履行은 물론 그로 인한 관련부분의 연쇄적 피해와 육계 계열체계에 대한 不信까지 몰고 온다.

이와 같은 似而非의 문제는 統合展開과정에서 一過性으로 발생하는 屬性을 갖고 있으므로 오래 걱정할 일은 아니다. 따라서 完全系列體系를 조속히 定着시키는 길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관련 모든 종사자들의 3I 개념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意志로 似而非主體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

다.

## VI. 참고문헌

1. 김정주. 1980. 한국육계산업의 계열화 체계와 그 효과. 한국 육계산업 발전 협의회.
2. 박영인. 1984. 韓國 브로일러 垂直統合에 적용가능한 類型研究. 建國大學校 大學院.
3. 박영인. 1985. 肉鷄生産과 流通의 統合. 韓國家禽 發達史.
4. 박영인. 1991. 韓國 肉鷄産業의 垂直統合(系列化) 展開狀況. 韓國家禽學會 18-1.
5. 백종희. 1989. 도계업의 경영개선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계간 농촌경제 제2권 4호.(12).
6. 유철호의. 1989. 양계系列産業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02호.
7. 축협중앙회.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1991
8. 축협중앙회. 畜産物 生産費 조사보고, 1991
9. U.S.D.A.. 1963. Vertical Cordination in Agriculture. Agricultural Economics Report, No. 19.
10. World Bank. 1983. Apraising Poultry Enterprises for Profitability. W.B. Tech. Paper. No. 10.